

광주 중1 학력 전국 최고

학력진단평가 평균 점수 84.7점 서울·부산보다 앞서

광주의 중학교 1학년 학력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6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진 '중학교 1학년 전국연합진단평가'에서 광주 학생들의 전체 평균 점수가 84.7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과목별 평균점수는 ▲국어 86.8점 ▲영어 85.7점 ▲수학 85.9점 ▲사회 83.9점 ▲과학 81.2점 등이었다. <표> 이에 비해 서울의 전체 평균은 83.4점으로 광주보다 낮았다. 그러나 영어 과목은 서울이 87점으로 광주보다 높고 사교육 정도에 따른 학력 차이를 짐작케 했다. 영어과목에 있어서는 서울이 다른 지역을 월등히 앞다녔다. 영어 외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광주가 서울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의 경우 모든 과목에서 광주보다 낮은 성적을 보였으며, 평균 점수 역시 83.2점으로 1점 이상 낮았다. 대전은 국어(87.3점), 사회(83.9점)가 광주보다 높았지만, 영어(85.4점), 수학(83.3점), 과학(80.5점) 등을 포함한 평균 점수(84.4점)에서 광주보다 낮았다.

울산과 제주도는 모든 과목에서 광주의 성적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6일 성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도간, 학교간 성적 비교가 손쉬운 진단평가 성적이 공개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교원·학부모단체는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교조는 "이제 각 중학교에 입학

지역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평균
광주	86.8	85.7	85.9	83.9	81.2	84.7
서울	86	87	85	83	76	83.4
부산	86	85	85	82	78	83.2
대구	87	84	79	83	79	82.4
대전	87.3	85.4	83.3	85.6	80.5	84.4
울산	85	84	79	83	79	82.0
제주	86	83	82	84	77	82.4

한 어린 학생들에게 진단평가라는 명목으로 전체 석차까지 공개해 가며 각 시·도교육청이 불필요한 성적 경쟁을 조장하고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시내 중학교에 개인 점수와, 과목별 등급, 문항별 정답 여부, 광주 전체 평균 점수 등 4가지 항목이 포함된 개인 통지표를 보냈다. 그러나 학교별 평균 점수는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중1 학력진단평가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교과목에 대한 학력을 진단할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지난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합의사항이다. 이번 시험의 성적이 높다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잘 배웠다는 것을 뜻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작년 흉악사범 11.4% 늘어

기소율은 98년 66.4%서 35.7%로 줄어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민생치안'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살인·강도·보복범죄 등으로 신체에 해를 입힌 흉악사범이 지난해 11.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연간 흉악사범의 수는 IMF 당시 세계형 범죄증가와 부유층에 대한 적대감 표출 등으로 1998년 1만665명까지 늘었지만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2002년 6천281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2003년 '카드대란'이 터지면서 흉악사범도 그해 7천152명, 2004년 7천529명으로 늘었다가 2005년 6천263명으로 다시 줄었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하면서 흉악범죄는 2006년 7천71명, 2007년 7천881명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흉악사범의 기소율은

1998년 66.4%에서 2003년 53.3%, 2004년 47.3%, 2005년 47.6%, 2006년 39.6%, 2007년 35.7%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검찰은 기소율 감소가 무죄추정의 원칙 확립, 공판주의 확대와 엄격한 증거의 요구, 피의자 인권 옹호 등의 요소가 사건처리에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정모(39)씨는 2004년 군포 전화방 도우미 실종사건과 관련해 실종 전 마지막 통화자로 드러나 긴급체포됐고, 거짓말장기 회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풀려났다.

흉악사범에 폭력사범, 성폭력사범, 약취·유인사범, 방화·살상사범을 모두 합친 '5대 강력사범'은 2006년 44만9천여명에서 지난해 46만1천여명으로 2.7% 증가했다. /연합뉴스

나원침 (7464) 김중두



U대회 광주유치 한마음대회 21일 광주시 동구청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2013 히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기원 구민 한마음대회'에서 주민들이 유치 성공을 다짐하며 환호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안양 초등생 살해 피의자 정씨 군포 40대 여성 실종 관련 수사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피의자 정모(39)씨가 이번 사건과 함께 지난 2004년 7월 군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21일 "2004년 7월 정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뒤 실종됐던 40대 여성 A씨 실종사건에 정씨가 갇힌 이 연관된 것으로 결론짓고 이 부분에 대한 정씨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씨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던 경찰은 정씨에 대한 거짓말장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씨가 실종 여성 A씨와의 통화 이유에 대해 '대리운전 기사로 전화

통화한 것'이라고 둘러댔고 집안과 차량의 혈흔검사 등에서 별다른 증거물을 찾지 못하자 풀어줬었다. 경찰은 또 2005년 12월 3일 밤 정씨의 전화를 받고 정씨 집으로 찾아갔다 성폭행 당한 군포에 사는 B(53)씨를 상대로 정씨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작년 1월 6일 안양시 관양동의 S노래방 도우미 김모(37·중·고교포)씨가 실종된 사실을 1년2개월이 지난 이날 새롭게 공개하면서 김씨가 노래방 도우미라는 점과 실종당일 김씨가 30대 남자와 함께 노래방을 나간 점 등으로 미뤄 정씨가 관련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다용도의 건축·산업지체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반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공장 : 061) 337-0571

장애인 임금 착취 40대여 검거 조사

안도 경찰은 21일 장애인을 유인해 영업에서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은 김모(48·여·신안군 신의면)씨를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9월 초 신안군 신의면 상대서리 영업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인 박모(50·광주시 광산구)에게 2년 6개월간 임금 1천3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또 정신지체 장애인 김모(30·완도군 고금면)씨를 5일 동안 일을 시킨 뒤 일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원도=정문조기자 ejchung@

야생 멧돼지 공격 받아 구례 70대 할머니 중상

70대 할머니가 야생 멧돼지로부터 공격을 당해 크게 다쳤다. 구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에 구례군 광의면 구만리 지도암 부근 밭에서 콩을 심던 이 할머니(70)가 멧돼지에게 공격당해 왼쪽 2~3개월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멧돼지는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으나 1시간 30분만에 죽은 채 발견됐다. 한편 사고를 낸 멧돼지는 10년생 수컷으로, 몸무게만 180~200kg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여학생들만 골라 110만원 갈취

○=등교하지 않는 공휴일을 이용해 여학생들만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던 10대 남·여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잡혔다.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선모(여·16)와 등 남·여 고등학생 6명은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D상가 앞에서 전모(여·14)와 등 두 명을 골목으로 끌고 가 현금 3만6천원을 빼앗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여학생들을 상대로 학교에 나가지 않은 공휴일을 이용해 금품을 빼앗았으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24일까지 57명에게 현금 110만원을 갈취. ○=선양 등은 경찰에서 "중학교 동창들인데 노래방과 PC방 게임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처를 호소.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강화 초병 살해 총기 탈취범 사형 구형 군 검찰 "범행 동기·죄질 극형 불가피"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에서 초병을 살해하고 군용무기를 탈취해 초병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5)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군 검찰은 21일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피고인 조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연합뉴스

조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박상철 상병과 이재혁 병장을 코란도승용차로 친 뒤 흉기를 휘둘러 박 상병을 살해하고 이 병장에게 중상을 입힌 후 K-2소총 1정과 수류탄 1개, 실탄 75발, 유탄 6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 1월9일 기소됐다. /연합뉴스

반갑다! 봄비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며 오후 늦게 비가 내리겠다.

구분	날씨	기온
광주	흐리고 비	7~17℃
포항	흐리고 비	7~15℃
여수	흐리고 비	9~13℃
완도	흐리고 비	6~14℃
구례	흐리고 비	4~18℃
해남	흐리고 비	5~15℃
장흥	흐리고 비	4~15℃
고흥	흐리고 비	6~15℃
순천	흐리고 비	4~18℃
영광	흐리고 비	4~15℃
진안	흐리고 비	5~16℃
전주	흐리고 비	6~16℃
남원	흐리고 비	4~17℃
홍천	흐리고 비	7~10℃

사해남부
안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남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안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2:29 썰물 < 07:42
여수 밀물 < 09:30 썰물 < 08:17
여수 밀물 < 21:49 썰물 < 15:29

▲해돋이 08:33 ▲해질 18:46
▲달출 19:22 ▲달짐 06:28
◇주간날씨 기상인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날씨						
최저/최고	8/15	4/16	3/14	4/15	3/16	3/18

담배꽂초 타액 분석 의약품 절도단 검거

경찰이 절도현장에 떨어진 담배꽂초에서 유전자를 검출해 10대 의약품 절도단을 전원 잡거했다. 안모(13·광주시 북구 두암동)군 등 10대 6명은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광주시 서구 금호동 A병원 의약품 보관 창고에서 의약품을 훔쳐 달아났다. 현장에 출동한 광주 서부경찰은 안군 등이 피운 담배 꽂초 5~6개를 수거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안군 등은 이날 화순에서 차량을 훔친 뒤 교통사고를 냈다. 화순경찰은 운전석 옆에는 국과수에 의뢰한 뒤 검출된 지문을 통해 안군 등을 붙잡았다. /이종형 기자 golee@

가뭄 해갈 촉촉한 봄비

21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22.5도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주말과 휴일인 22, 23일 광주·전남 지역에는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는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기온도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 광주·전남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20mm. 휴일인 23일에도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잦겠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참치캔 **칼날** 즉석밥 **곰팡이** 옥수수 **곰팡이**

'먹거리 공포' 확산

'국민과자'인 농심 새우깡에서 '생쥐 머리'가, 참치 캔에서 칼날 조각이 오는 등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즉석밥과 옥수수가루 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21일 이마트 시화점 등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임모(27)씨가 지난 12일 이마트 시화점에서 구입해 17일 개봉한 동원F&B의 '왕후의 밥, 갈고의 찬' 제품에서 곰팡이로 보이는 회색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 물질은 포장용기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해 쌀 밥 위에 지름 2cm 정도의 크기로 자라고 있었다. 이마트 시화점 측은 "물류 이동과 정에서 제품이 무거운 것에 짓눌리거나 던져지면서 공기가 유입돼 곰팡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즉석밥을 생산한 동원F&B측도 "진공상태로 밀봉을 하는데 팩 안에 이물질로 만들어진 비닐막이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어 있어 제조과정에서는 곰팡이가 생길 수 없다"며 운반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보건사회연구원과 경상대학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과제로 수행한 '푸모니신 등 식품의 독소유해' 관련 국가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위해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유통중인 건조 옥수수와 옥수수가루 상당수에서 발암성 곰팡이 독소 '푸모니신'이 검출됐다. 푸모니신은 옥수수에서 생기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로 옥수수와 가공품, 맥주 등에 존재할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 분류에서 푸모니신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2B그룹(possibly carcinogenic)에 포함돼 있으며 동물에서 신경독성, 간독성을 일으키며 사람에서도 식도 세포의 변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 푸모니신 모니터링을 확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2009년에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연합뉴스

기름유출 피해 태안주민 72% "자살 충동"

200명 의식조사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과 모항 향구 주민들 70% 이상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천안 나사렛대 심재권 교수가 최근 태안지역 기름 유출 피해지역인 만리포해수욕장 및 모항 향구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태안 기름유출지역 주민의 주민의식 및 행태조사'에서 나타났다. 21일 심 교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름유출 사태 이후 자살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는냐'는 설문문에 응답자(159명)의 72.3%(115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자살충동 이유는 '생계곤란'(85.2%), '기름유출에 따른 건강악화'(7.0%), '지역주민과의 갈등'(2.6%) 등으로 나타났다. 자살충동은 어업종사자(64.8%)가 상업종사자(54.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부의 '태안기름유출사고특별법' 제정이 생계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설문엔 '전혀 아니다'(17.0%), '아니다'(40.3%) 등 부정적인 응답이 57.2%를 차지했으며 특별법 제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도 '전혀 아니다'(5.7%), '아니다'(40.3%) 등 부정적인 응답이 46.0%로 긍정적인 응답(28.3%)보다 비율이 높았다. /연합뉴스